

방과후 교육활동 음악 프로그램 개발 및 모형탐구*

이 성 주**

차 례

- I. 서론
- II. 음악분야 특기·적성 교육활동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 빈약한 음악 프로그램
 - 2. 전문 음악 강사 확보의 어려움
 - 3. 음악 분야 특기·적성 활동의 실효에 대한 의구심
- III. 미국의 방과후 교육(After-School)운영 모형과 음악 프로그램
 - 1. 마운틴 뷰 시 소재 "음악·미술 지역학교"
 - 2. 샌프란시스코 시 소재 "지역 주민 음악 센터"
 - 3. 콜번 예술학교
- IV. 음악 아카데미(가칭) 설립 제안 및 운영방안
 - 1. 비영리 음악 교육기관인 "음악 아카데미(가칭)" 설립의 필요성
 - 2. 음악 아카데미의 성격
 - 3. 음악 아카데미의 조직 및 구성
 - 4. 운영
 - 5. 음악 아카데미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 6. 음악 아카데미 기본 운영 사항(규약)
 - 7. 통합적인 음악 교육과정 기준(안)
- V. 결론

* 이 논문은 1998/1999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

I. 서 론

음악 실기 지도를 위한 특별한 공교육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이 방치되어 왔던 우리 나라 음악 교육에 대한 개혁 방안이 최근 여러 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한 방안으로, 1997년 6월에 교육 개혁 위원회는 과외 대책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장기 단계로 「방과후 교육활동」¹⁾의 확대 제공을 위한 추진 계획 사실을 밝힌바 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정부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하며 특히 예체능 분야 과외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 분야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98년 4월 13일). 그 이후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용어사용을 학생들이 방과후에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과외활동과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특기·적성 교육활동」²⁾으로 용어를 바꾸고, 그밖에 「과외 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600억원씩 2004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현 제반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나 방과후 교육 활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탁아기능의 확대차원에서 주로 연구하여 왔다. 그 밖의 연구 자료로는 간혹 방과후 교육에서 취미와 특기를 살린 과목을 시행해 오던 학교들이 제출한 시범 학교 운영 보고서가 있을 뿐이었다. 1997년 후반기에 와서야 교육부의 정책 과제로 서울대 이종재 교수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방과후 교육 활동에서 음악 과목 운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방과후 교육에서의 음악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음악 교육이 안고 있는 음악 실기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즉, 정규수업 이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별도로 받고 있는 음악 과외학습을, 음악단체나 비영리 음악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더불어 이에 따른 제도적 모형제시와 음악 교과과정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한다. 교육부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학교내의 특기·적성 활동만으로는 음악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외에서 음악 분야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음악 아카데미 - 가칭)의 설립과, 이 기관을 통하여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골자이다.

1) 방과후 교육활동(After school)은 정규 수업 후에 학생들의 사교육 과외를 학교에서 행해지도록 수립한 교육부 정책으로 초기에는 ‘방과후 아카데미’ 또는 ‘예체능 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려지었다.

2) 특기·적성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기르기 위해 희망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별도의 강사를 채용하여 방과후에 실시하는 교수·학습활동을 말한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 분야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현황을 조사하고 현황 파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미국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서 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오는 전국 예술 전문 지역학교 협회의 운영방안과 음악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악 아카데미의 운영방안과 통합적인 음악 교과과정 기준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로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시하여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 모두를 포함시켰으며, 분야로는 음악활동에만 국한시켰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내 활동에만 국한시키는 의미로 쓰였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내·외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연구 방법은, 국내 연구는 교육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16시·도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특기 적성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외 자료는 본 논문의 저자가 수년간 미국에서 실제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관계된 음악 교육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음악감독, 담당자들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Ⅱ. 음악 분야 특기·적성 교육활동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초기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1997년 이후 2~3년 사이에 16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제 228회 정기국회를 위한 1999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³⁾ 총 학교 97.8%인 1만 34개교가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학생은 총 학생의 44%인 324만 명이고,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50.1%, 중학생 38.2%, 고등학생 36.8%에 달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특별활동 담당 장학관제를 신설 운영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이 곳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운영절차 및 회계관리에 이르기까지 '권장사항' '의문사항' '금지사항' '선택사항'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고있다. 일선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3) 교육부, 1999년도 국정감사자료 V, 1999년 9월 29일, pp. 271~278.

엇볼 수 있다⁴⁾.

그러나 실제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음악 과목의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빈약한 음악 프로그램

실제로 강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분야의 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교육부 학교 정책과에서 발행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 운영 현황⁵⁾ (99. 3. 1 - 7. 31)을 보면 일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바이올린, 합창, 기악, 사물놀이가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명시되어 있다(표1 참고).

〈표 1〉 일개 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학교급	교 과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초	컴퓨터	영어 회화	미술 관련	글짓기	서예	과학 탐구	사물놀이	바이올린	수학 영재	바둑	합창	종이 접기	체육 관련	무용	태권도
중	컴퓨터	영어 회화	일어 회화	논술	수리 탐구	사물놀이	축구	미술	과학 탐구	구기 운동	테니스	기악	독서	볼링	바둑
고	일반 계	컴퓨터 회화	일어 회화	논술	워드	사물놀이	수학 탐구	인터넷	볼링	테니스	문예 창작	탁구	한자 토론	독서	미술
	실업 계	컴퓨터 워드	인터넷	사물놀이	영어 회화	일어 회화	정보 처리	기능 사	그래픽	조리	미술	에어 로빅	축구	만화	디자인

또한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바이올린과 합창이다(표2 참고).

〈표 2〉 인근학교 운영의 대표적인 협력 프로그램 명

순	1	2	3	4	5	6	7	8	9	10
프로그램명	컴퓨터	영어 회화	사물(풍물)놀이	수영	바이올린	생활 체육	서예	일어 회화	미술	연합 합창

4)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9.10, pp.1~33.

5) 교육부, 「특기 적성 교육활동 운영 현황」, 1999년 8월, pp.2~3.

교육청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사물놀이, 국악, 관악 이외에 제 8위에 음악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어떤 분야의 음악 프로그램인지 조차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표 3 참고).

<표 3> 교육청 주관 운영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명

순	1	2	3	4	5	6	7	8	9	10
프로그램명	과학발 명교실	종합 예술제	사물(종물) 놀이	국 악 교 실	미 술	독 서	관 악	음 악	육 상	수 영

서울 및 강원지역의 방과후 음악 활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⁶⁾에 따르면 수강 과목은 바이올린, 플루트 이 대다수였다.

이상의 음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문화 보전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사물놀이, 국악이외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룹지도가 용이한 몇몇 악기의 실기 지도와 합창이 전부이다.

2. 전문 음악 강사 확보의 어려움

음악 과목 지도 강사는 특정 악기의 실기 지도를 해야하는 외부 전문 강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음악 실기 지도는 전문 악기와 특정 과목을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확보가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모 신문사에서는 방과후 교육을 지원할 전문 강사를 신청 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에 전문 인력 풀을 만들어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 집중되고 있는 현 시스템은 지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로서, 경기도내에서 발생했던 강사 알선 사기 사건이 있다. 1999년 1월 6일자 음악 교육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음악 강사를 알선한다는 명목 하에 강사료를 가로채는 브로커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⁷⁾ 이들은 임의대로 강사료를 조작하기 때문에, 음악 강사들은 강사들대로 고통을 받고, 이에 항의하는 강사들을 브로커들이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정작 학생들은 일정한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는

6) 이성주, “방과후 교육으로서의 음악 활동 활성화 연구”, 음악 연구, 한국 음악학회, 1998 pp. 343-345.

7) 음악 교육신문, 제 179호, 1999년 1월 6일 p.2.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선 학교에서 전문 음악 강사의 직접적인 확보의 어려운 점과 외부 인력의 관리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음악 분야 특기·적성 활동의 실효에 대한 의구심

전국 공립 초등학교 565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⁸⁾에 따르면, 현재 특기 적성 활동이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된다 (표4 참고).

<표 4> 특기·적성 교육활동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한다	보통	만족 못한다
프로그램의 질	27.3	49.0	19.7
외래강사에 대한 만족도	31.1	39.6	23.1
자원봉사자에 대한 만족도	19.2	38.3	42.6
학생수준에 따른 지도 가능여부	33.1	21.3	45.6

이밖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하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과반수 이상의 학교에서 담당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전문성을 요하는 음악 실기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앞에서 제기된 프로그램의 부실과 전문 강사의 확보의 어려움 등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하는 사안이다. 음악 실기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교현장에서의 음악 분야 특기·적성 활동 실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첫째, 빈약한 음악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 하여도 제한된 학생들로 인하여 수강 인원의 성원이 어렵기 때문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가 없다. 둘째, 실기 교육이란 지속적인 시간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관리,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특기 적성 활동에서는 실기지도는 외부 강사가 하지만 학생들의 관리는 대부분 일반교사들이 맡고 있는데, 이들이 실기 교육면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에는 능력과 업무에 한계가 있다. 셋째, 특정 악기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외부에서 공급되어도, 외부 강사들은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못

8) 이종재, “방과후 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 연구소, 1998, pp.67~77.

하기 때문에 빈번한 강사 교체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실기 지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학교장이 바뀌는 경우 학교 전체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실기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열악한 음악환경이다. 일선 학교에서 일반교과와 다른 음악 실기 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따로 마련하고 제대로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좋은 음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악기와 그에 따른 수많은 부속 장비, 음향 기기, 녹음 시설 등을 마련함은 물론, 보수하고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이와 같이 설비를 갖추더라도 그 활용도는 극히 낮다.

Ⅲ. 미국의 방과후 교육(After-School) 운영 모형과 음악 프로그램

오랫동안 방과후 교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음악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는 헝가리에서는 학교 수업 이외에도 원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악기 학교에서 실기 수업을 받을 수 있다⁹⁾.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다채로운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한 비영리 교육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⁰⁾(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이 오랫동안 방과후 교육으로서의 음악 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정착된 방과후 교육활동은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국 예술 전문 지역학교 협회(National Guild of Community Schools of the Arts = NGCSA)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NGCSA는 비영리 기관인 지역 주민 학교로서 방과후 학교 활동으로 예술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예술 전문 지역학교들의 전국 협회이다.

이 기관의 목표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손쉽게 부담 없이 예술을 가까이서 접하고 배움으로써, 풍부한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배양함에 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 학교인 셈이다. 지역 내의 여러 기관들과 기업체들이 지역 주민의 예술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수강 과목은 예술 분야만으로서, 음악, 무용, 드라마, 문예 창작, 미술 등이며, 수업은 학생들의 정규 수

9) 김춘미외, 「음악실기 전문교육 개혁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예술 종합학교 부설 한국 예술 연구소, 1993, p.153.

10) 이성주, “방과후 교육으로서의 음악 활동 활성화 연구”, 음악연구, 한국 음악학회, 1998 pp.327-336.

업 시간 이외인 방과후나 또는 주말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일찍이는 3개월부터 어른까지이며, 주로 초·중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 각 연령층에 맞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어떤 일정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준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초·중·고급 수준으로 나누어져 수업이 진행된다. 지도 강사는 각 분야의 대학 전공자로서, 주로 학사나 석사 과정 졸업자이며 간혹 박사 학위 소유자들이나 지역 대학 강사가 출강하기도 하는데, 특히 음악교육 분야의 경험자들이 많다.

중앙 사무국(뉴저지 소재)의 운영은, 1954년 뉴욕시의 후원금으로부터 시작되어, 1967년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과 국립 문예진흥 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및 1991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금(The Lila Wallace Readers' Digest Fund) 등 기타 많은 후원금과 회원 학교들의 회비에 의해 이뤄진다.

1997년 7월까지 가입된 현황은, 미국 전역과 뉴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한 40개 주에 걸쳐 220개의 회원 학교가 있다. 이 중 작은 규모의 학교는 등록 학생 100여 명부터 시작하여, 큰 학교는 등록 학생이 7000여 명 등 제각기 다양하다. NGCSA는 지역 학교들간의 긴밀한 유대감과 빠른 정보 교환 등 이들의 필요를 다각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신흥 학교들에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와 조직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NGCSA의 회원학교 중 다음 세 학교의 학교성격과 음악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마운틴 뷰 시 음악·미술 지역학교(Community School of Music and Arts)
2. 샌프란시스코 시 지역 주민 음악 센터(Community Music Center)
3. 콜번 예술 학교(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

1. 마운틴 뷰 시 소재 "음악·미술 지역학교"(Community School of Music & Arts=CSMA)¹¹⁾

1) 학교의 성격

자원 봉사자를 비롯하여 마운틴 뷰 시의 지원금과 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오고 있고, 실리콘 그래픽 회사의 후원금 등 지역의 여러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CSMA 학교 내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교육청의 연구비를 받아 지원되는 'Music in Action' 강좌는 초등학교 현장 300여 개의 학급을 찾아가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 탐방(outreach) 프로그램인데 이 학교의 자랑이며 훌륭한 기획으로 수상된 적도 있다.

11) Website: //www. natguild. org/mountainview.htm.

2) 음악 프로그램

어린이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춘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비롯하여 매 학기마다 학생 음악회, 교수 음악회가 있다. 또한 병원, 양로원, 기타 지역 기관을 찾아가서 음악회 등을 열기도 한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특성상 각 민족들의 고유음악과 문화를 일요일 오후 시리즈별로 소개하는 다문화 민족 음악회(Multi-Cultural Family Concert)가 있다.

수업은 실기 개인 지도와 일정한 수의 그룹 지도로 나누어진다.

(a) 개인 실기 지도

베이스,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건반 악기, 미디, 하프시코드, 리코더, 플룻, 호른, 클라리넷, 색스폰, 트롬본, 트럼펫, 비브라폰, 기타, 드럼, 타악기, 성악 등을 지도한다. 한 학기에 주당 1번의 개인 지도와, 주 1번의 실내악 수업, 한 주간의 워크샵이나 마스터 클래스와, 학기 말에 있는 학생 음악회 출연이 포함되어 있다.

(b) 그룹 지도

다양한 연령층과 수준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고, 풍부하면서도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다. 일반적인 서양 음악 악기나 이론뿐 아니라 동양, 남미 음악 등 다양한 민족 음악들도 소개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룹 지도는 유아기 아동과 초등 학생들을 위한 것과, 중·고등 학생들과 어른들을 위한 것으로 둘로 크게 나뉜다. 이 과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몇 강좌만 소개하고자 한다.

(1) 유아기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수업

- 음악에의 탐험 (Adventure in Music) : 3개월부터 6살까지 연령별 4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3~18개월, 18~36개월, 3~4살, 5~6살). 노래와 춤, 게임, 여러 가지 몸 동작 익히기 및 악기로 연주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이 주는 기쁨을 몸소 느끼게 해 주며, 후에 악기를 정식으로 배우기 위한 도입과정이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수업을 하며 소그룹 단위로 구성된다. 기저나 겨우 걷는 정도의 3~4명 신생아들에게 선생님과 엄마가 같이 노래를 불러 주기도 하고, 간단한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소리를 통해 언어나 숫자 등을 가르친다. 어린이들은 이런 음악 소리에 맞춰 흥겹게 반응도 하고 울동을 따라 한다. 이런 과정이 심성 발달과 정서 순화는 물론 지능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 건반 악기 입문(Introduction to Keyboard): 4명 이하의 8세에서 10세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수강하고 있다. 5대의 디지털 키보드가 있으며 각자의 악기로 기초 이론과 건반 악기 입문을 닦고 있다.

- 앙상블 (Instrumental Ensemble): 7~14세 어린이들로서 1년 이상의 개인 실기 수업 경험 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문하기 위한 준비 훈련 코스이다.

(2) 청소년과 어른을 위한 수업

- 컴퓨터와 음악(Computer & Music/ Midi): 컴퓨터로 녹음과 작곡 등을 할 수 있는 기초와 중간 수준을 다루며 6명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 재즈(Jazz Combos): 재즈의 종류와 기본 기술을 배우며 그룹 연습과 연주 기교를 익힌다.
- 브라질 음악(Escola de Samba): 브라질 특유의 삼바와 그 밖의 리듬을 익히고 고유의 악기를 배운다.
- 중국 음악 (Chinese Instruments): 중국음악 전문가로부터 직접 고유의 악기를 배운다. 이 과목은 외부의 후원금으로 지원이 되어, 좀더 많은 사람에게 동양 음악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무료로 수강이 된다.

2. 샌프란시스코 시 소재 “지역 주민 음악 센터”(Community Music Center=CMC)¹²⁾

1) 학교의 성격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음악 교육과 문화 생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는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문예진흥원의 부분적인 지원금을 받아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개 강좌도 많다. 학교 밖에서도 지역의 예술 문화에 관련된 교육 및 연주회를 많이 주관한다. 샌프란시스코 초등학교들과 연계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별히 1996~97년에는 리치몬드 에 있는 학교들의 방과후 학교 활동을 도왔다. CMC 선생님들이 유대인 민족 주민학교나 샌프란시스코 공립 학교들에 가서 직접 음악 특별 수업을 하기도 한다. 최 연소자 학생은 3개월 생이고, 최 연장자는 85세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2) 음악 프로그램

1921년에 시작한 역사가 오래된 학교답게 77년 동안 발달시켜 온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1996년에 75주년 기념 음악회가 성대히 열렸으며, 이 학교에는 자체 건물로 좋은 연주 홀이 있어서 많은 음악회가 학교 연주 홀에서 열린다. 매주 1회 정도 정기 연주회가 있고, 무료 음악 특별 강좌 및 연주회가 수시로 있다.

12) Website : [//www.sfmusic.org](http://www.sfmusic.org).

주민 음악 활동으로는 CMC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 샌프란시스코 어린이 합창단, 베토벤 합창 워크샵, 재즈 밴드, 지역 오케스트라 과목은 수강료는 없지만, 일정한 수준이 있는 음악 애호가들로 제한이 되어, 오디션이 주어진다. 텔레비전방송 출연 및 정기 연주회도 하며 꾸준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고전 서양음악뿐 아니라 라틴, 중국 음악과 재즈 등 여러 가지 민속음악과 스타일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a) 실기 개인 지도

봉고, 드럼, 동양 음악, 전기 기타, 클래식 기타, 혼, 플루트, 하프시코드, 건반악기 반 알렉산더 테크닉, 바로크 테크닉, 베이스, 바순, 하프, 첼로, 클라리넷, 작곡, 지휘, 주, 오보에, 타악기, 피아노, 리코더, 색스폰, 트롬본, 트럼펫, 튜바, 비올라, 바이올린, 성악 등을 가르친다.

(b) 그룹 지도

- 음악 훈련 집중 과정 (Comprehensive Musicianship Program): 9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소질도 있으면서 음악 전공을 고려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개인 레슨, 실내악, 연주, 음악 이론 수업을 겸해서 통합적으로 수업하도록 한다. 이 과정의 모든 과목 등록금은 개인레슨비만 내고 나머지는 무료이다. 단 CSM에서 1년 이상의 개인 실기를 받았어야 한다.
- 음악치료(Music Lesson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신체 장애인이나 정서적 불안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음악 수업이 이 방면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상 연령은 6세부터 어른까지이다.
- 음악 기초자들과 어린이를 위한 그룹 지도 과목: 어린이를 위한 음악(Music for Children), 어린이를 위한 민속음악(Folk Music for Children), 건반 기초 입문 (Introduction to the Keyboard), 독보(Music Reading)가 있다. 4세에서 7세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와 같이 스즈키 교육 방법으로 피아노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Parent & Child Piano Program).

3. 콜번 예술학교(The 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¹³⁾

1) 학교 성격

1950년에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의 예비학교로서 창설되었다가 1970년대에는 차츰 폭을 넓혀 지역 예술학교(Community School of Performing Arts)로서 많은 활동을 해 왔다. 그 후 이미 USC의 한 예비학교로서의 규모를 벗어나자 자치 독립학교로 분리되어 이후부터 학교명을 '콜번 예술학교'로 명명하였다. 상당히 큰 규모와 높은 수준으로 컨서

13) Website: [//www.natguild.org/colburn.htm](http://www.natguild.org/colburn.htm).

바토리에 준하는 위치를 갖고 있다. 유아기 대상의 초급 수준부터 있지만, 대학의 전문 분야 이상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이곳의 실기 학생들 중에서 각종 국내,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한 이들도 있으며, 졸업 후 좋은 음악대학에 진급하고, 전문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 연령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의 학생들이지만, 이들 중 뛰어난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대학교 과정에 준하는 수준을 이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 학점이 인정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일한 예술학교이다.

이곳의 실기 교사들은 거의 다른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는 전문 음악인들로서 USC대학의 피아노 교수인 존 페리도 이곳에서 피아노 실기 및 공개 강좌를 맡아 가르치고 있다. 자주 있는 공개 강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초청되어 가르치고 있다. 실기 장학생 제도와 연간 소득 \$19,000 이하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학비의 10%~50% 면제가 되는 제도 등 여러 장학 제도가 있다. 예전에는 USC 캠퍼스의 한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독지가의 막대한 후원금으로 훌륭한 연주 홀을 갖춘 자체 내 건물로 이사하였다. 지금은 여느 음악대학의 수준에 버금가는 시설과 음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2) 음악 프로그램

세계적인 대 연주가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자 음악회 후원회가 있다. 그 간 레온 플레이셔, 요요마, 임마누엘 엑스, 미도리, 앙드레 왓츠, 이작 스텐 등이 학교를 방문해 연주해 오고 있다. 또한 L.A. 오페라 극장과의 협약으로 오페라에 관심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도 있다. 이 학교의 오케스트라는 1960년부터 1년에 3번씩 L.A.의 지역 초등학교 학교 구를 순회하며, 일년에 총 2천 여명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주해 오고 있다.

(a) 개인 실기 지도

피아노, 목관, 금관, 타악기, 현악기 등 모든 악기 실기 지도가 있으며, 작곡, 지휘, 이론 과목도 개설된다.

(b) 그룹 지도

기초 이론 I부터 대학 수준에 준하는 VIII 과정까지 분리되어 있으며, 반 편성은 시험에 의해 분반된다. 유아 음악교육과가 따로 있어서 스즈키 피아노 등 여러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어린 나이 때부터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표 5 참조).

<표 5 > 콜번 예술학교 개설 과목 / 1998 겨울학기

•유아 음악교육과

과 목	연 령
부모와 같이(Music for Two's : and Moms/Dads)	3 ~ 4세
리듬과 율동(Rhythm & Movement)	3 ~ 4세
동화 듣기와 율동(Story telling/ Creative Movement)	3 ~ 4세
스즈키 피아노 입문(Introduction to Suzuki piano)	3 ~ 4세
음악과 율동과 연극(Music, Movement & Mime)	4 ~ 5세
창작 연극(Creative Dramatics)	5 ~ 7세
피아노 기초 과정(Piano Prep)	

IV. 음악 아카데미 설립 제안 및 운영방안

최근 일선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음악 실기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 교과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교육활동까지 전과정을 학교에서 이행하기란 역부족이다. 이에 앞장에서 살펴 본 미국의 전국 예술 전문 지역학교 협회(National Guild of Community Schools of the Arts=NGCSA)를 모형으로 하는 “음악 아카데미(가칭)”의 국내 설립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형태의 기관은 음악 분야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담하는 비영리 음악교육기관이다. 본 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성격, 운영방안 및 음악 교과과정 기준안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음악 교육기관인 “음악 아카데미(가칭)” 설립의 필요성

1) 음악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결매체로서의 기관

전국적으로 일 만개가 넘게 산재해 있는 음악교습소와 요즘 심지어 백화점 문화센터까지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는 우리네 음악교육 수요자 수는 과히 세계적이다. 한편, 값비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수많은 음악 전문 인력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음악 대학만으로는 이들을 소화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있다. 그밖에도, 음악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음악 대학 졸업생이 매우 많다. 이렇듯, 높은 음악교육열을 가진 많은 수요자가 있고, 많은 음악 전문가가 잉여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의 음악시장은 정체되어 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유통구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즉, 각 수요자들의 필요에 알맞는 공급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주고 관리하는 전문적인 기관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

2) 전문성을 요하는 음악교육의 특수성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음악의 많은 개념들을 구체적인 악기라는 매체를 통하여 음악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기지도는 제한된 일선 교육현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시설 면에 있어서도 음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교과와는 달리 악기와 음향 기기, 녹음 시설 등 구체적인 음악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3) 기존 음악학교와의 차별화

현재 예원 예고와 같은 특수 목적학교가 있지만 이곳은 일반교과과정과 전공교과 모두를 담당해야 하는 대학입시를 위한 진학 기관이다. 예술기관으로서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비학교가 있으나 이는 전문음악교육을 목적으로 한 소수의 영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기 또한 유아과정이 없다. 그러나 음악교육자 코다이(Kodaly)이론에 따르면 예능계 영재의 경우 3살 때부터 7살까지 바른 기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음악학자 고든(Gordon)도 모든 사람의 음악적 소질은 9세까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며, 그 이후부터는 평생동안 고정된 음악 소질을 지니게 된다고 했다. 이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유아과정이 우리 음악교육체계에서는 공황기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일반 음악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전무한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방과후 학교로서 유아부터 전 연령대에 걸쳐 일괄적으로 음악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이 기관의 특수성이다.

4) 대중적 음악인구 저변확대

오늘날 우리 음악교육의 중요한 임무는 대중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서 음악문화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음악애호가를 길러내는 것이다. 한 두 명의 음악천재를 길러내는 것 보다 한 두 악기를 잘 연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음악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성숙시키고 생활에서 이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곧 내일의 문화 사회의 힘이라 믿는다.

5)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한 방과후, 주말 학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빠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 스타일은 변하고 취미활동과 자기 개발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전국 33개 초중고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시범 실시하고 결과를 보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¹⁴⁾ 체험학습, 놀이시설이 등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보면,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 주말 학교가 더욱이 준비되어야 한다.

6) 청소년 문화 창달

종전의 몇몇 특기생에 국한되었던 예능교육이 일반학생들에게 보편화됨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교과목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을 권장함으로써 어른들의 상업 문화의 모방이 아닌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된다.

7) 지역 문화의 중심, 구심점

21세기는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화사회이다. 여가를 즐기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문화 사업이 중요하게 부상하게 된다. 이에 주민의 음악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8)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의 음악교육 모델 제시

최근 각 사회 단체에서 - 백화점 문화 센터, 종합복지 사회관 등 - 음악강좌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대학 사회교육원들도 일반인은 물론 초·중·고 생 실기지도를 개설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방과후 교육 활동 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교과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절실하다.

9) 영재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음악 아카데미의 일차적인 목표인 일반 음악 교육이 정상적인 궤도에 이른 뒤에는, 향후 영재 학생을 선별하여 전문 음악 교육까지 확대 할 수 있다. 즉, 일반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의 수강료로 운영을 충당하고, 영재에 속한 특별한 학생은 선별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집중적으로 전문 음악교육을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외국의 많은 비영리 음악 전문 교육기관

14) 동아일보, 제24681호, A 31면, 2000년 11월 29일.

에서 일반 음악교육 뿐 아니라 전문 음악교육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장점은,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음악 아카데미에 전문 음악교육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면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불공정 시비에 대한 문제를 극소화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연계된 영재학교 설립 요청이 대학 입시 문제로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음악 아카데미는 공정하며 효율적인 영재 교육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음악 아카데미의 성격

1) 시민 개방학교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부담 없이 예술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개방형 음악학교이다.

2) 비학위 과정

기존의 음악교육기관들이 학위과정으로 일정한 입학 자격을 요구하는 반면, 이 기관은 비 학위 과정으로 분반을 결정하는 수준별 테스트는 있지만 입학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3) 비영리 사회교육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교육기관으로 후원자들에게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더 많은 후원자를 유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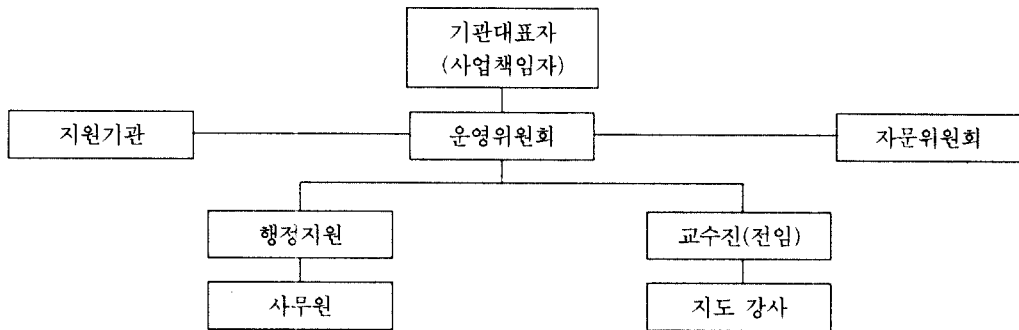
4) 지역문화 기여

음악 교육을 담당하는 것 이외에도 부담 없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음악회를 주최하는 등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배양한다.

3. 음악 아카데미의 조직 및 구성

중앙회와 지역 운영체제로 나뉜다. 중앙회는 지역기관들의 운영 조항 등 세부사항을 규범하고 관리 평가한다.) 지역 운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강료 설정들은 지역별의 표준을 정해 공동으로 준수사항을 결정한다. 지역 운영체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표 6 참고)

<표 6> 지역 운영체제 예시



4. 운영

제반 운영비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충당한다. 대부분 방과후 교육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수강 단위를 월 별로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출입으로 전체 수업 진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일정한 액수가 보장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강 단위를 적어도 학기별로 정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하고, 예기치 않은 일로 수강 신청을 철회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환불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만든다. 또한 경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수강료를 강사의 자질에 따라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강료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시설 투자와 문화 사업비는 시, 도 의 예산과 문예진흥 기금, 교육부, 문화 복지 기금, 지역 경제 후원금,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보조한다.

5. 음악 아카데미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먼저 서울에 시범적으로 운영모형을 만들고 주요 3개 도시를 설정하여 신청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그 후 점차적으로 행정상의 시행 착오를 줄이면서 6개 도시와 14개 도시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토착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 주요 3개 도시 → 6개 도시 → 14개 도시

6. 음악 아카데미 기본 운영 사항(규약)

1) 3 차년 계획

기관의 사명과 일치하는 직접적인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되는 교과과정을 구비

하여야 한다. 최소한 한 학기 분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구비하고, 기관의 중단기 계획을 적어도 3년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2) 교육과정 활자화 명시

교수진 약력, 교과과정 내용, 학비와 비용에 관한 사항, 학비환율 규칙, 학제등을 학교 책자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대로 준수한다.

3) 음악교육 시설 확보

지역의 문화관, 공연장, 시민 회관 등을 활용하여 기존 유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예산의 수용 범위에 따라 자체 건물을 마련한다. 음악 교육을 위하여서는 강의실, 레슨실은 물론 학생 연습실, 실내악 연습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연습할 수 있는 대형 연습실, 연주홀, 음악도서관의 시설이 필요하다. 비품으로는 피아노, 전자악기 장비, 녹음 시설, 감상실, 오디오, 비디오 장비, 오케스트라, 밴드 악기, 컴퓨터 등이 갖추어져야한다.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보수하고 최상으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상의 규칙도 준수되어야 한다.

4) 자체 평가 수행

법적인 회계관리를 정확히 하며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었는지, 또한 예산은 인력, 시설, 장비 등으로 적당히 배분되는지 평가한다. 교수진의 임용과 평가를 위한 공정한 절차를 갖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기관의 생명력인 사명, 교육목표, 교과과정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기록문서

기관의 문서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함은 물론 학생들의 수강과목, 성적, 교육적 성과를 정확히 수록한다.

6) 자격증 발급, 평가 기준 마련

비 학위 과정이라도 일정과정을 수료할 때는 자격증을 주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취득한 학점이 타 지역에서 인정되기 위해 과정별 기준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로알 음악원에서는 독자적 음악평가 시스템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 Examination = RCME)을 개발하여 1년에 한차례씩 음악평가시험을 실시하는데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구분하

여 평가한다. 이와 같이 각 기관에서 공동 연구하여 자체의 학생 판별법을 마련하여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실력이 객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학생들이 전학 시 과목의 수평이동이 용이하고 학점 교환이 가능토록 한다.

7) 지역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지역구 학교와 연계되어 서로 왕래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장탐방 프로그램도 기획하므로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교육청) 및 유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는다. 또한 지역 내 연주 단체, 예술 단체 등과도 연결되어 협력되어야 한다.

7. 통합적인 음악 교과과정 기준(안)

음악 교육은 실기지도 연마 뿐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 가는 전반적인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감으로 완성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즉, 실기지도와 실내악, 발표회, 음악이론 수업을 공통단위(package)로 묶어 수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기 지도비 안에 기타 다른 과목의 수강료를 포함시키는 방법과, 실기지도를 받으면 기타 과목의 수강료 일부분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 있다.

여러 음악 분야의 선택은 각 기관의 특권이지만 대상과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수준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각 분야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과 폭넓은 교육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되 각 분야의 기본 개념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실기 지도

현재 피아노와 현악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실기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악기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특정 미디어 연주를 위한 연주 곡목을 다양하게 익히며 연주에 필요한 기교상의 발전을 꾀한다. 실기지도는 개인 지도와 그룹 지도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다.

2) 실내악

개인 연주 뿐 아니라 동질 악기끼리의 앙상블(플루트 앙상블, 첼로 앙상블등)이나 미디어가 다른 악기끼리의 중주를 개설한다.

3) 오케스트라

1년 이상의 개인 실기수업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에 입문하기 위한 준비 훈련 코스를 마련한다. 실내악 보다 더 큰 규모의 현악 오케스트라, 관현악 오케스트라, 밴드 지도가 필요하다. 이 경우 각 기관의 특성화를 살리고자 하면 장기계획을 세워 어떠한 규모와 방향으로 발전 할 것인지 먼저 계획하고 확장하되 단계별로 그룹을 만들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발표회

그 어떤 음악 과목도 필히 지도 후 학생 발표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실력의 향상은 물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학예회나 양로원 방문 연주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익힌 바를 제각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배려한다. 이러한 학생 발표회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춘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비롯하여 가족음악회, 교수 음악회를 마련한다.

5) 성악지도

성악지도, 합창지도, 뮤지컬을 위한 드라마, 연기를 위해 개인 지도나 그룹 지도를 한다.

6) 음악통론

음악의 여러 요소 - 리듬, 선율, 화성, 음색, 형식 등 -를 이해한다. 시창과 청음, 음악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운다.

7) 작곡과 즉흥연주

모방기법과 창조성을 기르는 수업을 한다.

8) 음악 문헌과 음악사

문화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시간과 미디어가 다양한 음악을 이해한다. 각 음악특성에 맞도록 작곡상의 기법과 연주자의 관점, 음악 역사적인 내면까지 깊이 이해하는 음악적 심미안을 키운다.

9) 테크놀로지

작곡, 연주, 분석, 연구, 교수법 등의 분야와 관련된 음악 기술을 이해한다. 컴퓨터의 소프트

웨어, 하드웨어의 기초를 가르치면서 음악에 실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10) 유아교육

유아들을 위한 학습은 음악을 수반한 율동과 활동들을 통하여 유아에게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스즈키,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와 같은 전문 교육 방법을 시도하고, 유리드믹스와 같은 강좌를 소개한다. 건반악기 입문과 같은 초보대상의 지도는 부모와 같이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11) 음악치료

신체 장애인이나 정서 불안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음악 수업이 이 방법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음악과 임상치료의 성과로서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건강의 향상, 유지, 회복을 다룬다.

12) 다 문화(multi-culture) 소개

서양음악 뿐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동양 음악과 악기도 소개하면서 다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13) 그 밖의 다른 음악 관련 분야

이상에서 서술되지 않는 관련 분야 음악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IV. 결 론

음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는 값비싼 예능 사교육비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때마다 거론되어지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과결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육부에서는 예체능 분야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파악된다. 첫째, 음악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16개 도시로 확산되어서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음악 강좌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수 년 동안 그룹지도가 용

이한 몇몇 악기의 실기지도일 뿐 천편일률적이다. 둘째, 특정악기의 실기지도를 위해 섭외해야 하는 외부 전문 강사의 확보와 관리가 어렵다. 이로써 학생들이 일정한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실기지도를 받지 못해 능력이 떨어진다. 셋째, 음악분야 특기, 적성 활동의 실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즉 제한된 학생 수 때문에 다양한 음악 강좌를 개설 할 수가 없다. 또한, 시간 투자가 요구되어지는 실기지도를 위해 학생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소속감이 결여된 외부강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일선 교사들의 업무에 한계가 있다.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정책변화와 음악시설이 미비한 열악한 음악환경 등 근본적인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시행상의 과도기적인 문제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완이 가능하기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음악 실기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하는 사항이라 분석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 음악 분야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담하는 비영리 교육기관 “음악 아카데미-가칭”의 새로운 모형을 제안한다. 즉 현재 음악 교육에서 안고 있는 음악 실기 지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 음악 아카데미에서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음악 교육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새 모형의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예술 전문 지역 학교 전국협회 (National Guild of Community Schools of the Arts = NGCSA)의 운영사항을 소개하였다. 이 NGCSA에는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예술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지역 학교가 미국 40개 주에 걸쳐 220개 가입되어 있는데(1997년 7월 현황), 그 중 다음 세 학교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1. 마운틴 뷰 시 음악·미술 지역학교(Community School of Music and Arts)
2. 샌프란시스코 시 지역 주민 음악 센터(Community Music Center)
3. 콜번 예술 학교(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

NGCSA를 모형으로 하는 ‘음악 아카데미’의 국내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악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결매체로서의 기관으로
2. 전문성을 요하는 음악교육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면서
3. 기존 특수목적학교와 영재학교와 차별화를 갖고
4. 대중적 음악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쓰는
5.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한 방과후, 주말학교이다.
6. 청소년 문화 창달과

7.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도 하며
8.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의 음악교육모델을 제시하고
9. 향후 영재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본 음악 아카데미의 성격은 시민개방학교로서 비 학위 과정을 다루며 지역 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조직과 운영, 추진계획 및 행정상의 구체적인 기본 운영 규약을 명시하였다. 또한 실기지도 뿐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힘쓰도록 통합적인 교과과정 기준안을 만들어 각 분야의 기본 개념 설명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고한 음악아카데미가 운영됨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 음악교육기관 진출 대비 강화
- 잉여 전문인력을 위한 직업 창출
- 사교육비 절감
- 향후 영재교육기관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인한 조기유학 방지
- 대학과 연계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입시 부정 시비 예방
- 공공기관의 유후 시설 활용
- 예산집행의 집중적 투자

21세기 문화시대가 도래한 요즘, 음악 아카데미 설립은 청소년 새 문화 창조와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반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외. “방과후 교육 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7.
-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IV).” 제5차 대통령 보고서, 1997.
- 교육부. “교육 개혁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 개혁 추진 상황 자체 평가, 1997. 6.
- _____.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현황.” 학교정책과, 1999.8.
- _____. “99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 현황 및 지원 예산 운용 방안.” 학교정책과, 1999.9.
- _____. “1999년도 국정감사자료 V.” 1999.9.
- 김광순. “국내 대학 음악 교육 교과 과정 분석 연구 - 음악과와 음악교육과를 중심으로 -.” 교육시장 개방과 음악개혁의 현단계, 한국 예술 연구소, 1995.
- 김병환. “국민학교 아동의 특기교육에 관한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선미. “학령기 아동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모형 정립.”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용환.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전문 음악교육의 방향.” 교육시장 개방과 음악교육 개혁의 현단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 연구소, 1995. pp.155~182.
- _____. 세계의 주요 예비학교 현황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9.
- 김인용. “국민학교 어린이의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김종하. “각 사회단체 개설 음악교육강좌 적법한가.” 음악교육신문. 제170호, 1998. 8. 19.
- _____. “각 사회단체 음악강좌 과도성장 문제있다.” 음악교육신문. 제183호, 1999. 3. 10.
- 김춘미. “교육시장 개방과 음악교육 개혁의 현재.” 교육시장 개방과 음악교육 개혁의 현단계, 한국예술 연구소, 1995. 5. pp.3~23.
- 대한교원신문. 제 746호. 2000.5
- 동아일보. 제24681호, A31면, 2001.11.29.
- 서영숙 외. 프로젝트 중심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 : 양서원, 1996.
-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9.10.
- 송탄중학교.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방과후 교육 활동 활성화 방안.” 방과후 교육활동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1997.
- 양재숙. “효과적인 현악기 지도 방안의 실제(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운영하는 현악부를 중심으로).” 음악분과 현장 교육 연구 보고서, 1998.

- 오명숙. “외국의 음악대학 제도 및 교과과정 연구 미국[2].” 21세기 대학 음악 교육의 방향(이화여자대학교 음악 연구소), 1997. pp. 93~120.
- 이성주. “방과후 교육으로서의 음악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음악 연구. 한국 음악 학회, 1998, 제 17집.
- _____. “방과후 음악 교육 활동의 문제점 분석 및 제안점.” 예체능교육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예체능교육연구소, 1998, 제 3집, pp. 23~43.
- _____. “미국의 음악의 현황분석-종합대학교를 중심으로-.” 음악대학 부설 예비학교 설치 및 운영방안. 한국음악학회 & 한국피아노학회 '99정기학술세미나, pp.3~35.
- _____. “미국 음악대학과 연계된 예비학교의 운영체제 및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음악 논집.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1999, pp.245~264.
- 이연경. “외국의 음악대학 제도 및 교과과정 연구 미국[1].” 21세기 대학 음악 교육의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음악 연구소, 1997, pp. 35.
- 이영민. “교육 시장 개방과 한국 고등 음악 교육기관의 개혁 과제.” 교육시장 개방과 음악 학교 개혁의 현 단계. 한국예술 연구소, 1995. 5. pp.241~264.
- 이재형. “학교 음악 교육과 사설 음악 교육의 연계를 위한 실태 연구.” 음악 교육 연구. 한국 음악 교육 학회, 1998, 제 16집.
- 이종재. “방과후 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교육연구소, 1998. 1.
- 이향란. “방과후 이동지도의 실태와 기관 운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조용환 외. “방과후 교육 활동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행정연구센터 현장교육탐구 보고서, 1997. 12.
- 치악초등학교. “학교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방과후 교육 활동 시범학교 운영 보고서, 1997.
- 한국여성개발원. 방과후 이동지도 프로그램-총론-. 삼성복지재단, 서울 : 교육과학사, 1997.
- After-School Study Centers, New York City. “Elementary Program in Co Education 2.” *American Inst. for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s*, Palo Alto, Calif. 1969.
- The 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 *The 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 1999~2000 Bulletin*, Los Angeles, CA., 1999.
- Dryfoos, Joy G. A Look at Community Schools in 1998. New York: Fordham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Schools and Communities, 1998.
- Fashola, Olatokunbo S. Review of Extended Day and After-School Programs and Their Effectiveness. Baltimore, MD: Center for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Students

- Placed at Risk, In press.
- Fulmer, Elizabeth H.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ctivities for school-Age Youth in the Extended Day Enrichment Program." July 1992.
- Hedges, Gerald A. "A Survey of Compensation Practices for Duties Beyond the School Day 1971-72." Pennsylvania Univ., Philadelphia. Feb. 1972.
- Lohman, Maurice A. "The Expansion of the After School Study Centers for Disadvantaged Public and Nonpublic School Pupils." Center for Urban Education, New York, N. Y. Committee on Field Research and Evaluation. Sept. 1967.
- Lohman, Maurice A. "After-School Tutorial and Special Potential Development in I.S.201-Manhattan." Center for Urban Education, New York, N. Y. Committee on Field Research and Evaluation. Sept. 1967.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1999~2000 Handbook*. Reston, Virginia: NASM, 1999.
- Vandell, Deborah Lowe. "After-school programs vary in quality." Wisconsi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Highlights 7, no.2 (Summer 1995).

<인터넷자료>

- Community Music Center - <http://www.sfmusic.org>
- Community School of Music & Arts - <http://www.natguild.org/mountainview.htm>
- National Guild of Community Schools of the Arts - <http://www.natguild.org>
- The 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 - <http://www.natguild.org/colburn.htm>
- Worldwide Internet Music Resources -
[http:// www.music.indiana.edu/music_resources/som.html](http://www.music.indiana.edu/music_resources/som.html)
- Safe and Smart : Making After-School Hours Work for Kids
[http:// www.ed.gov/pubs/Safe and Smart](http://www.ed.gov/pubs/Safe and Smart)

ABSTRACT

Development of After-school Music Programs and its Model

Sung Ju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evelopment of after-school music programs and its model.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In part I, We investigate after-school music programs, focusing on school's extra activities in Korea. In part II, We introduce various music programs in United States. In particular National Guild of Community Schools of the Arts (NGCSA) is introduced. Three member schools of NGCSA are examined :

- Community School of Music and Arts
- Community Music Center
- Colburn School of Performing Arts

In part III, We propose a new type of music institution which is a non - profit organization, providing after school music programs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may help to provide a high quality of after school music programs, offering the opportunity to study and learn to as many young students as possible.